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옥색 빛깔이 번지는 곳, 키르기스스탄

정연재

언젠가부터 중앙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생겼다. 텐산산맥 위에 지어진 유르트(중앙아시아의 전통 가옥)에 머물면서 말을 키우며 딱 일 년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다. 그곳의 유목민들처럼 거처를 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었다. 실크로드와 사막, 초원, 그리고 말이 날 반겨주는, 가깝지만 미지의 세계인 그곳을 언젠가 꼭 탐험해 보리라 다짐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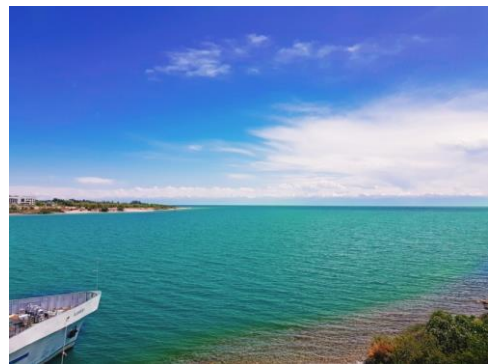
어쩌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리란 것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먹은 것은 ‘레췌쉬까’라는 빵이었다. 레췌쉬까는 보름달같이 둥그렇고 큰 모양의 빵인데, 바게트보다 밀도가 높으면서 씹을수록 고소해져 자꾸 찾게 되는 맛이다. 이곳 사람들의 영혼과도 같은 빵인 레췌쉬까는, 둥글둥글 모나지 않은 키르기스 사람들의 마음씨를 닮아 있었다.

출폰아타는 이식쿨 호수 북쪽에 있는 평화롭고 작디작은 시골 마을이다. 식당에 가는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부부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레스토랑을 몇 개 추천해 주고 직접 차로

태워다 주기까지 했다. 경계심 없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들 덕분에 온 텐산산맥이 나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식쿨 호수는 청량 그 자체였다. 나긋한 남실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의 잔잔한 호수, 그 고운 물결 아래는 작고 예쁜 보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것 같았다. 끝없이 까마득하게 펼쳐진 옥빛 호수는 이 세상 자유와 행복을 몽땅 머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품 안에 기꺼이 나를 함께 머금어 주었다.



카라쿨은 키르기스스탄 동부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인데, 이곳의 작은 집들은 참 정겹고 귀엽다. 러시아식 목조 교회와 시장, 풀밭에서 쉬고 있는 소를 구경하다 보면 반나절이 금방 간다.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국이다 보니 러시아식 건물과 음식이 많다. 아시아와 러시아가 동시에 스며있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다.

카라쿨의 호스텔에서는 독일, 브라질, 싱가포르, 스코틀랜드 등에서 온 많은 여행자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우리는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달랐지만, 키르기스스탄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매듭 삼아 하나로 묶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알라쿨 호수였다. 하지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아직 녹지 않은 탓에, 호수에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

다. 알라쿨 호수는 내가 키르기스스탄에 온 이유이기도 해서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아쉬운 마음에 산을 십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 멀리 풀을 뜯고 있는 흰색 말이 보인다. 잠시 구경하고 있으니, 말의 주인아저씨가 나에게 묻는다. “한번 타볼래?”

키르기스 사람들은 순박하고 사람을 좋아한다. 아쉬운 마음으로 멍하니 서 있는 여행자를 그냥 지나칠 법도 한데, 본인의 말을 실컷 태워주시고는 즐거운 여행 하라는 말과 함께 가던 길을 가셨다. 덕분에 알라쿨 호수에 가지 못한 허탈함보다는 말을 타며 느꼈던 즐거움이 더 진하게 마음속에 채워졌다.

혼자서 여섯 시간 동안 알틴 아라산을 올라가는 길은 평화롭고 좋았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여섯 시간 내내 산을 오르다 보니 사람이 그립기도 했다. 열심히 걷다 보니 슬슬 캠프가 보이기 시작했고, 허



기졌던 나는 바로 캠프 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선택지는 국수와 밥, 두 가지였다. 나는 국수를 시켰는데,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식당 아저씨가 밥을 주셨다. 국수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꼭 먹어보고 싶었던지라 슬픈 얼굴을 미처 감추지 못했다. 그런 나의 마음을 간파하셨는지, 아저씨가 국수를 한 그릇 만들어서 말없이 빙그레 웃으며 내주셨다. 어찌다 보니 2인분을 제공받은 나는, 그 순간 살갑지는 않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졌고,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 순간에 감사했다.



캠프에서 내가 배정받은 유르트는 아주 컸고, 나는 한 키르기스 아저씨와 같이 유르트를 쓰게 되었다. 가이드를 하러 산에 올라왔다는 그는 영어를 꽤 잘해서 우리는 복지, 임금, 문화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키르기스스탄 전통 모자인 칼팍을 여자가 쓰는 건 처음 본다고 신기해 했다. “예쁘면 장땡이지 뭐!”라고 말하니 “하하하, 그건 맞아.”라고 대답해 준다.



은은히 켜진 작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가 유르트를 감싸주었다.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주위를 맴도는 동안, 사람들의 노랫소리는 알틴 아라샨의 바람을 타고 산기슭까지 흘러갔다. 나는 이런 포근함을 느끼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에 왔나 보다.

다섯 시간 동안 걸어서 산에서 내려오니 너무 배가 고팠다. 아무리 둘러봐도 식당같이 생긴 곳은 없길래, 그나마 팻말 하나가 걸려있는 곳을 발견해서 문을 열고 조심조심 들어가 보았다. 알고 보니 그곳은 식당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었다. 주인아줌마께서 날 보고는 깜짝 놀라셨다. 의도치 않은 가택침입을 하게 된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구글 번역기로 식당이 어디에 있다고 물으니, 이 주변에는 식당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가라며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다. 레보쉬까, 건과일, 쿠키 등으로 구성된 키르기스스탄의 전형적인 손님상이었다. 많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다. 너무나 황송한 대접이었다. 언젠가 여행 다큐멘

터리에서 본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손님을 신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절대 과언이 아님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귀한 손님상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이, 대어섯 살로 보이는 아줌마의 딸이 나에게 슬며시 다가와 관심을 보였다. 치아 하나가 흔들린다며 나에게 계속 보여주었다. 낯선 외국인 언니에게 조용히 다가와 본인의 방식으로 관심과 호의를 표하는 그 아이를 보며, 은은한 따뜻함을 가진 이 나라 키르기스스탄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비슈케크로 돌아오는 길, 좁아터진 봉고차에서 다닥다닥 붙어 가는데 옆 사람이 계속 치길래 조심 좀 하라고 살짝 짜증을 냈다. 나와 엇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그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미안해 하는 그를 보니 짜증을 낸 내가 되레 미안해졌다. 그것을 계기로 대화하게 된 그와 나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덕분에 버스에서의 여섯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만난 사람들은 현지인은 물론이고 여행자들까지 이 나라를 참 많이 닮아있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여행은 반 이상이 ‘사람’이었다.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떠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곳이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지곤 했다. 내가 만난 키르기스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런 존재였길,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전해졌길,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 나의 교차점이 언젠가 다시 생기길, 한번 바라본다.

키르기스스탄에 머무는 동안, 나도 이곳에 동화되어 이곳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던 나를 따뜻함 품으로 한껏 감싸주는 이 사람들을, 이 자연을, 이 나라를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키르기스스탄을 생각하면 레뽀쉬까 같이 둥근 마음씨를 가진 키르기스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청량함과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영롱한 옥색의 이식쿨 호수빛이 아름답게 수 놓인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후기 공모전 수 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